

## ● 1983년에 바란다

새로운 질병, 새로운 사양기술, 새로운 약품 등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자기의 10년, 20년 경험이 최고라는 타성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하여 항상 귀를 열어놓아야 할 것이다. 솔직한 대화, 이해 그리고 협동으로 살아가야지 혹시나 옆집이 알 세라 질병이 왔어도 쉬쉬하고 있다가 전 단지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작년같은 일은 없어야 하며 나혼자 잘 살기 위하여 냉동차로 운반해야하는 백신을 트럭으로 삼복더위 속을 달렸다는 이런 후문은 결코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생물을 다루는 우리업에서는 적당한 타협이란 편견과 고

집일 수 밖에 없다. 모든 편이 다 그렇지만 특히 질병문제에 있어서 설마하고 적당한 소독으로 안심할 수가 없다. 완전한 방역, 철저한 소독만이 필요한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 격안정 등 제반사항을 다루어야하고 한탕이라는 기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여 생업으로서의 직업공지를 가지고 편견과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며 업체간의 솔직한 대화를 유도하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협동하는 우리업계를 만들어 보자.

새해 아침에

### 이웃의 따뜻한 손 마주잡고 이해하며 양보하는 협동 양계인

이 태 섭

(본회 안양분회장, 육계업)



작년한해는 속이 텅빈 겉부자의 한해였다. 이것을 옛말에 외부내빈이라고 하던가?

겉보기는 산물의 시세폭락 없이 지나온 한해였으나 실은 전염성후두기관염이 주머니를 텅 비게하여 양계업은 모처럼 컸던 기대가 ILT로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서 83년에 바라는 소망은 더욱더 간절한 것인지?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 또 해야할 일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급하면 체하겠기에 차근 차근 몇가지 소망을 물어본다.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82년에는 돼지의 뒷꼬리 잡고 따라가면서 나 도요 하고 외친것도 큰 힘이 되었기에 올해는 좀 더 나아가 높은 담위에 날아 올라서 돼를치

면서 긴목을 뽑아 목청을 높혀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숫탔과 같이 제일 높은자리에서 돼를치는 일등하는 어린이를 만들자.

생산조절이 안되는 것인지?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는 하지만 웬일인지 잘 안된다. 「양계인」이라는 한가족이면서도 부화장과 사육장은 생산조절이라는 요리를 잘못하여 쓰고, 달고, 맵고, 때로는 짜고, 시고, 뽕고해서 요리를 망치는 예가 많다. 새해에는 공동요리강습회라도 열어서 요리를 잘 만들어서 소화를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더 배우고 싶다.

지난 몇해 동안 보온덮개 덕분에 간이축사(계사)가 많이 늘어났다. 그것은 늘어난 만큼 기존업자의 사업이 확장된 것이 아니고 거의 새로운 사육가들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너무도 착수하기 쉬운 때문이다.

년에 얼마의 사용료로써 대지가 확보되면 비교적 적은비용으로 간이계사(대나무하우스)가 신축되는 것이다. 그리고는 가까운 친지나 친척을 찾아 간단하게 물어본 것이 그들에 병아리사육 지식의 전부이다. 그래서 B<sub>1</sub>백신을 ILT 백신으로 잘못알고 눈에다 점안하는 사례도 있고 70일, 80일을 길러도 출하를 할 수 없어도 생하는 예도있고 길러는 농았으나 판매처를 몰라서 소위 덤핑출하를 하여 유통질서까지 저해하는 사례도 한두건이 아니다. 심지어는 사료값이 비싸다하여 부모일러에 산란대추사료를 급여하는 예도 보았다. 새해에는 양계인들이 공부할 많이 하였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다. 가끔 잡지에 나오는 사양기술을 읽고 느낀다. 과연 조보자를 위한 내용인가 하고! 물론 잘하는 이는 실증이 나겠지만 아는 이는 다시한번 복습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는지 반성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서투른 이론으로 말로만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할 것이다. 또 서투른 이론을 완전한 양 주장하여 훈장님 앞에서 문자쓰는격이 된다면 다음에 더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항상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귀담아들어서 연구하고 실천하여 배우고 발전해야겠기에 올해부터라도 공부 좀해야하겠다.

축산물가공처리법(도제법)은 이루어져야한다 이제 지켰고 말할 힘도 없었다. 7년전 한때는 한달만이라도 연기해야 한다고 하더니 웬일이냐고 한다면 할 말은 있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또 주위의 환경이 지금과는 달랐다. 우선 소비자 반기를 들었다.

죽은 닭이라고 또 처리능력도 없었다. 그리

고 유통구조를 담당한 상인들이 갑자기 닥친 일에 질서를 잃었기 때문에 유통이 마비되어 사양가는 선의의 피해를 보았다. 이제는 그때와는 다르다. 그동안 사양가들은 밀고 밀리는 사이에서 많은 희생을 당하였다.

당국에서 도제법만 실시한다 하면 생산물은 채화되어 가격의 폭락을 감수 하였다. 그동안 시설을 갖춘 도제장들이 많이 신축되었고 또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이해되었으며 일부가공업이 발달 되어 부분육, 발골육 등이 개발되어 공급되고 있다.

또 서울만 남겨두고 주위의 지역에서는 도제 유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시기적으로도 꼭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 다만 법을 집행함에 있어 운영의 묘를 잘 살려고 조그마한 상처 하나라도 없이 실시되기를 바란다.

질병없는 한해를 기원한다.

작년 상반기 언젠가 강화도에 신종질병(ILT)이 발생하였는데 순식간에 전국을 삼켜버렸다.

그래서 애꿎은 소독약만 매일같이 뒤집어 썼을 뿐 묘책이 없다가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ILT 백신의 박람회장이 되었고 갖가지 진풍경도 많았다.

B<sub>1</sub>백신을 잘못알고 눈에다 점안하는 진경도 있었고, 노계에 쓰는 강독을 병아리에 투약하여 후유증으로 더 큰 피해를 보는 굶어부스럼 만드는데 잘못도 있었고 어디약이 좋고 어디약이 좋다는 실험장이 되기도하였다. 어린 병아리군에다 일부러 감염된 큰병아리를 넣어서 강제로 감염케 하여서 어려서 면역을 시키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백출하였다. 제발 83년에는 예방약 박람회장이나 실험실이 되지말고 병없는, 특히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고 두손 모아 빈다.

몽쳐서 힘을 길러야 한다.

제우회, 축우회, 유사협회 등 만들지만 말고 하나로 몽쳐서 힘을 길러야겠고 참여도 모두다 함께 하여야겠다. 남이 맘흘려 닦아놓은 길을

뒤에서 구경만 하다가 완성된 뒤에 뼈라도 짝아  
별듯이 끼어드는 암채는 없어야겠고 다소 뜻이  
맞지않는다면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여 서로가  
존보씩만 양보하면 벼룩을 잡기위해 초가삼간

불태우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훗날 모아두었  
던 힘을 더욱 더 필요하게 쓰기 위하여 자, 우리  
리모두 따뜻한 손 마주잡고 83년 출발을 첫걸  
음부터 힘차게 나아가자.

## 양계인들이 협회를 살찌우는 해 협회가 양계인을 배부르게 하는 해



장 지 현  
(농수산신보 기자)

癸亥年 새해아침. 양계업계를 선도하는 귀 협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지난 한해도 양계업은 큰 시련을 겪은 한해  
이었는데 그것은 아직도 간간히 피해를 주는 I  
LT 때문이라 본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양계  
업계는 전에 없는 단결을 보였었고 협회 또한  
전 임직원이 양축가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한  
해였던 것 같다. 양축가는 물론 관련업체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양계인의 전문지 「월간양계」도 갖가지  
양계업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심층으로 다  
뤄 많은 양계 관련인들을 일깨우기에 충분했다  
고 본다. 특히 양계산업의 계열화 등에 관한 기  
사는 정책당국에서도 많은 참고사항이 됐을 것  
으로 생각되며, 양계업의 생산기술에서 유통,  
판매, 방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 준다는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항상 불  
안한 가운데 계란을 생산하고 육계를 사육하는  
양축가들에겐 더없이 설득력을 지녔고 정책당  
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과제로 인  
식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제 돼지해의 새해를 맞는 이 아침에 지난

해 못다이룬 일, 귀협회가 풀어야 할 일들을 계  
획대로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밀고나갈 것을  
기대하며 나름대로의 생각을 피력코자 한다.

누구든 양계업에 대한 문제를 떠올릴 때 가  
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대한양계협회」일 것이  
다.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나 양계  
인들의 권익을 위해 건의할 곳을 찾을 때나 농  
수산부 정책당국을 찾기보다는 협회를 찾는 것  
이 당연하다고 보아야겠다.

이는 양계협회가 생산자 단체이고 생산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밀  
접하고 친근감을 준다는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  
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가 회원을 위해 혹은 양계인들을  
위해 얼마만큼 무엇을 했는가에 뚜렷한 것이  
없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흡한  
양계산물 홍보가 그것이며 미미한 협회 활성화  
가 그것이었을 것이다.

물론 「협회 활성화」같은 것은 당국의 뒷받침  
이 선행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있긴 하지만 이  
러한 당국의 지원만을 기다리다가는 생산자들  
의 권익옹호는 구호에만 그치고 말 것이다. 협회